

안양권의 문화예술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군포, 안양, 의왕시를 중심으로’

장석기

본 연구의 범위는 안양권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삼았다. 안양권은 역사적으로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안양권 3개 도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를 대상으로 현재의 문화예술 운영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통계연보 및 각종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3개 도시의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성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가 국가의 주요 쟁점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1991년 지방자치법 실시된 이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17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다. 지금의 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합의 하에 통과되면서 안양권 3개 도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안양권 3개 도시는 통합이 될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인구는 1,031천명, 면적은 149km², 예산은 13,494억 원이 된다. 지리적으로 보면 군포시를 중심으로 안양시와 의왕시가 인접해 있고, 역사적 유래를 보면 시흥군에서 안양시(1973년), 군포시(1989년), 의왕시(1989년)가 분리되어 역사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초 신도시 개발 이후로 외부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역공동체 의식이 다소 약화되었다. 1)

이에 통합논의가 다시 대두 중인 안양권 3개 도시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기존 자료 분석,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경기도 통계연감을 기본으로

1)한국미래도시연구소·한국U-City학회,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관한 세미나』, 한세대학교 U-City IT산업정책대학원, 2011, pp.4-16참조.

했으며 자료는 경기도 내 각 시.군의 통계자료 및 공공 기관의 보고서 등을 사용했다.

각 시.군의 문화예술 운영형태에 관한분석은 군 집분석 2) 과 인자분석 3)을 하였으며 통계패키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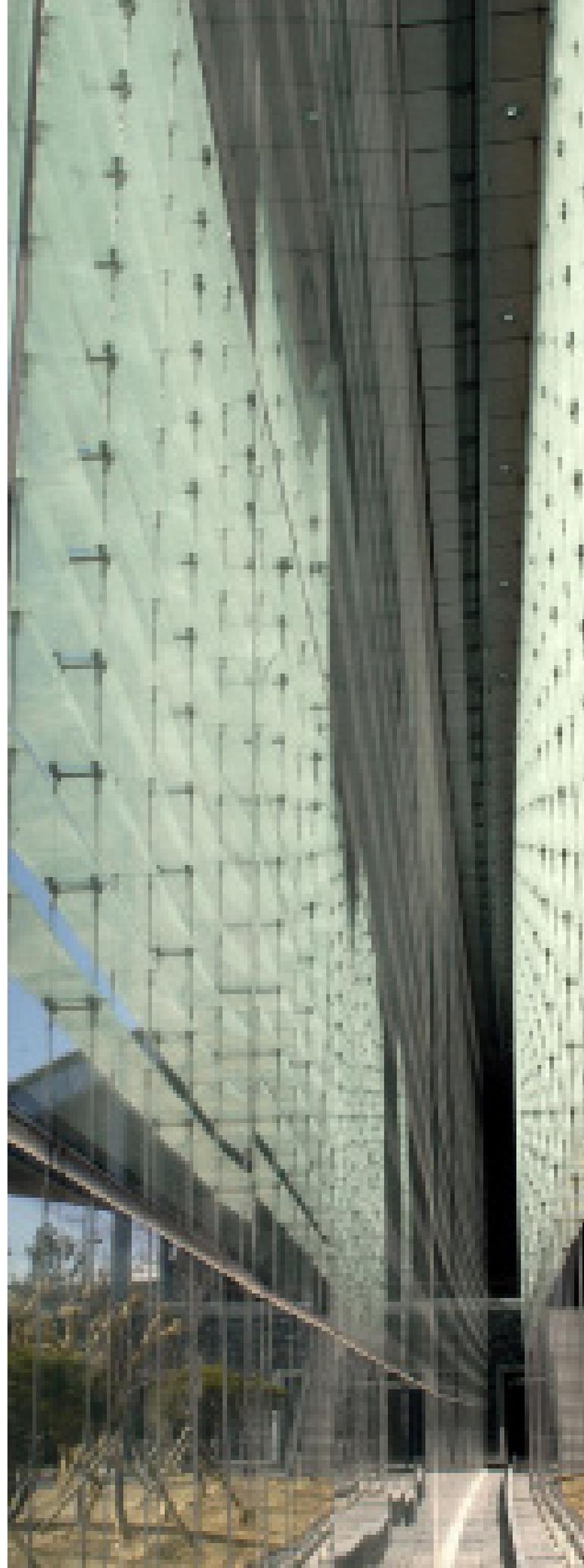
여러 지역사회분야에서 예술경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술경영의 연구는 복합적 분석방법이 이제는 도입되어 객관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문화예술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을 고립화 시킬 수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로 교통망이 발달하여 한 자치단체에서의 공연만 고집하지 말고 인근 도시와 연계하여 공동 문화를 구축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안양권의 문화예술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에 맞는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안양권 3개 도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의 문화예술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올바른 지역문화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

2)[cluster analysis, 群集分析]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는 통계적 분석기법.

3)[factor analysis, 因子分析法] 심리학적 분석방법으로서 지능검사와 함께 발달한 통계수학적 분석법. 하나 이상의 인자가 몇 가지의 인간적, 심리적 반응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계산에 의해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고 상관 매트릭스의 분석에 의해서 ㉠ 모든 관계들을 설명하는 공통인자를 발견하고 ㉡각 인자의 각 변수에 대한 기여의 크기를 결정하며 ㉢각 인자를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광고계에서는 특히 각종 상품이미지의 측정, 텔레비전 스포츠의 내용상기를 지배하는 인자구조의 규명 등에 이용되고 있다.



될 수 있다.

첫째, 군집 분석한 결과 3개의 그룹으로 나타났다.

제 1그룹은 대도시, 인문적 성분이 높은 곳으로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고양시, 양주시 등이 포함되었다.

제 2그룹은 중형도시, 인문적 성분과 문화재 성분이 중간 지점으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등이 포함되었다.

제 3그룹은 소도시, 문화재성분이 높은 곳으로 화성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운영형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31 시.군의 인구수, 문화재 현황, 문화예술공간현황, 예산 등 27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인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자분석 결과는 1.00이상의 고유치를 가진 인자가 7개가 추출되었으며 이들 7개의 인자는 전체 변량의 73.15%를 설명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고유량 1.07의 정(+)부하량을 나타내어 인문적 성분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군포시와 의왕시의 경우는 7가지 인자성분 중 어느 인자 점수에서도 1.00이상의 양(+)의 값을 갖지 못하고 있어 특정한 문화예술 성분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경기도 시.군의 27개 변수로 이루어진 기본데이터로 인자분석과 군집분석 한 결과를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4가지 문화예술콘텐츠 도시형 모델에 적용시켰다. 그 결과는 경기도의 시.군은 전통문화 콘텐츠형 도시, 문화자립형 콘텐츠 도시, 복합문화 콘텐츠 도시형은 존재하나 자족형 콘텐츠 도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기도 시.군의 문화예술정책과 운영은 전문가보다 행정 관료에 의해 지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

중에 문화예술을 전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문화재단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이 1997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1998년 강원문화예술진흥재단을 시작으로 2011년 초까지 전국 24개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내의 경우 31개 시.군중에서 현재 7개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군포시의 경우는 현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의왕시의 경우는 아직 설립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각 시.군의 문화예술발전은 적은 예산과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일회성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단일예산으로는 축제 예산의 비중이 크며 시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의 평균은 군포시는 32,000원, 안양시는 28,000원, 의왕시는 연간 5,000원 이하이다.

여섯째, 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군포시 8.6%, 안양시 8.6%, 의왕시 8.7%로 나타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축제도 시차를 두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도시형들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도시이미지에 대한 견해에서 안양권 3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38.2%가 주거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군포시민 15.7%와 안양시민 12.6%가 주거도시로, 의왕시민 12.3%가 환경도시로 간주하고 있다.

여덟째, 안양권 3개 도시 시민들은 현재 각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해 만족도는 만족하다 23.8%, 보통이다 60.1%, 불만족하다 15.4%로 보통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문화예술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홉째, 안양권 3개 도시에서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에 대한 기여도 조사에서 기여했다가 군포시 7.6%, 안양시 7.9%, 의왕시 7.8%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부정적인 응답자가 28.1%로 나타나 기여했다고 응답한 23.3%보다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견해가 더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 그리고 특정인에게만 집중 투자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 꿈나무들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이 어렵지만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에 3개 도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열째, 군포시와 의왕시의 주민들은 안양시처럼 문화재단 설립을 요구했고 안양시민들은 기 설립된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안양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군포시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포시민 70.9%와 의왕시민 62%가 문화재단 설립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안양시민의 40.6%가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13.2%가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열한째, 안양권 3개 도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3개 도시의 축제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역축제는 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군포시의 대표적인 축제에 대한 질문에서 74.2%가 철쭉축제라고 응답했고 수리수리마법축제 7.2%, 태을제 5.4%로 나타났다.

안양시의 대표적 축제는 안양시민축제 49.4%, APAP예술제 10.9%, 안양천 A+페스티벌 7.1%, 대한민국관악페스티벌 2.6%, 사이버과학축제 2.6%로 나타났다.

의왕시의 경우는 의왕백운예술제 48.9%, 의왕어린이축제 21.4%, 의왕단오축제 16.3%로 나타났다.

열두째, 최근 정부에서 문화나 생활권이 유사한 지역을 통폐합한다고 다시 발표한 바 있다.

안양권 역시 지방분권화 되기 전에는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곳이 지금은 3개의 도시로 나누어져 행정의 비효율성 측면도 인지된다.

통합도시 이후의 방안으로서 안양권 3개 도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후 통합이 된다면 재단의 기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교육재단, 체육재단 등으로 재편성하여 정책을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상의 연구결과 안양권 3개 도시는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정책 차원에서 행정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시민들이 만족할 문화예술정책이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양권 3개 도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재단 차원에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지역발전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세대학교대학원 2011학년도 예술경영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발췌)



장석기
음악 박사
호서대학교, 대불대학교 외래교수
한국문화예술경영연구학회장
군포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